

# 디자인 역사에서 나타나는 치유로서의 디자인

## Design Therapy in the History of Design

박지나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Park, ji-na

Dept. of Media Design, HSU

고영란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

ko, young-lan

Dept. of Media Design, HSU

• Key words: Design, Therapy, Catharsis

### 1. 서론

삶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인간은 늘 바라는 것과 관념적인 것들을 원시시대부터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은 '삶' 그 자체다. 디자인에 있어서의 '정신'은 어떠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또는 공유해야 할 의식과 가치를 배양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창조 유지하며, 자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 창조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라고 불리울만 하다. 이는 개개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한 공동체의 이념이 될 수도,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 정신을 하나의 치유의 기술(Therapy)로 설명 할 수 있을까?

본고는 '치유로서의 디자인'을 'Design Therapy'라 명명하고, 이미 역사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방법으로 '디자인'이 정신적인 기반이 되고 사상이 되어 '치유로서의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유의 디자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치유로서의 디자인(Design Therapy)의 개념

"이제 집이 생명치유까지 생각 합니다" 포스코 건설의 어고노믹스디자인 더샵의 그린 '테라피 아파트' 광고 카피다. 이미 우리는 디자인이 치유의 개념으로 부각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Therapy'라는 분야는 이미 색채, 미술, 독서, 원예, 댄스치료...등등으로 많고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 되었고, 실용화 되고 있다. 'Design Therapy'는 어떠한 질환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 가정의 기능 회복, 나아가 공동체의 긍정적 측면의 '정신'이자,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의식 개혁'으로서의 디자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치유로서의 디자인사례

#### 3.1 한국 규방공예 '자수', '조각보'

한국 디자인사에서 산업디자인 이전에 한국 '공예'를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볼 때, 규방공예야말로 한국인의 미의식과 디자인 감각을 잘 나타내주고 또한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치유로서의 디자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수'는 예술적, 지적 분야 및 공적인 세계로부터 차단된 여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미적 감흥과 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자수는 섬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오색실로 표현한 그

림으로, 옛 여인들의 기초 교양이자 미학이었다. 여성의 고귀한 품성도 자수 속에서 닦았고, 자기와 가족의 부귀영화도 자수를 통해 빌었고, 고뇌와 세상살이의 고단함도 자수를 놓으면서 잊고, 인내하고 봉사하는 미덕을 길렀다. 특히, 여성이란 이유로 의식주만 관여하고 공적인 삶에선 철저히 배제되었던 조선시대에서, 자수는 조선여인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타르시스'의 도구라 할 수 있었다. 달혀있는 규방에서 일상적인 애환을 자수로 달래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조각보'가 있다. 조각보를 만든 이유 중에는 '제작자체의 즐거움'이 있다. 천 조각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서 마르고 꿰매는 작업, 그 자체가 만드는 동안 예술가가 작품을 할 때 가지는 몰아의 희열을 주는 순수 창작의 기쁨인 것이다. 거기서 조선 여인들은 당시의 폐쇄 사회에서의 힘든 삶이 정확됨을 느꼈을 것이다. 조각보를 만드는 것은 노동과, 오락이 분리되지 않은 건전한 의미에서의 여가선용이었다. 버려질 운명이던 가지각색의 보잘것없는 조각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할 줄 알았던 능숙한 솜씨와 미적 감각도 조각보를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하기에는 이미 충분하며 이 또한 자수와 마찬가지로 삶을 정화시키는 '치유의 디자인'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영국의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의 '생활사회주의'

'생활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과, 의식적이며 사고하는 인간이라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 즉, 생활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투쟁을 말한다. '삶과 아름다움의 의의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생활사회주의'를 말하며 '예술은 인간 노동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노동은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모리스는 주장하였다. '디자인'으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는 여기 그의 '생활사회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리스는 이미 존재하는 수목에 주택을 조화시키는 노력, 거리외관을 손상하는 야외광고 부착반대, 매연방지, 쾌적한 공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장, 청결한 공기와 일광의 공유가 없어서는 안 됨을, 세탁장 및 부엌에 대해서도 명쾌한 편의를 있어야 하고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공적 공간이 각 가족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세기 전의 인물이 한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 시대의 요구와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리스는 집과 가정을 중요시 하였으며 물질적 기초가 생활의 리듬이며 예술차원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생활사회주의'야말로 디자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라는 사상으로써 개개인

의 의식을 바꾸고, 가정을 바람직하게 가꾸어 나가며, 세상 또한 그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로 향하게 했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생활주의'를 믿고 실천한 진정한 'Design Therapist'가 아닐까?

### 3.3 미국의 전통마을 '셰이커 빌리지'

미국 초창기 문화예술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특한 양식과 디자인을 발전시켰던 하나의 집단으로 셰이커 (shaker)교가 있다. 셰이커 교도들은 생활에 쓸모 있을 크기의 자그마한 건물에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노동 이외에 시간에는 뜨개질 같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옷, 모자, 손수건들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 또 셰이커 예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구'인데, 셰이커 가구의 특징은 장식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절제된 통일성에 있다. 또한 모든 셰이커 인공물은 생활양식을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디자인' 되었다. 생활과 기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유도되는 디자인의 형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구성들, 그들의 미학은 세속의 허영을 비웃듯이 실용성을 추구했던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셰이커 장인들의 솜씨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긴명, 순수(simplicity)라는 단일성과 순수성은 그들 삶의 중심이고 목표이자 생활이었다. 셰이커들은 자신들이 디자인 작업을 아름다운 창조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의 구현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 했기에 그들에게 있어 '디자인'은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가시화 시키고자 하는 고지식한 믿음의 산물이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종교 아래 '디자인'되어 삶의 방식으로 녹아내린 이 예는, 삶에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한 정신으로 디자인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보여 준다. 셰이커 디자인은 현대 디자인 현실에서 어쩌면 간과되고 있는 '디자인에 있어 정신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3.4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 개선운동'

'More Beautiful Things for Everyday Use'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스타일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어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스웨덴 디자인이 국제적 성공할 수 있던 까닭은 수공예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기계적 대량생산을 자연스럽게 접목하고,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년 간 전쟁을 겪지 않은 역사적 상황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던 디자인의 초창기부터 디자인 이론과 실제작업의 행복한 만남을 구현해 온 사회민주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디자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아름다운 일상용품'은 디자인을 사회개혁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설정 한 것이었고, 이를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미학으로 성취하려는 시도로 등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번두리로 세계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나라이자 후발주자로 시작한 산업화,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로 가는 부작용은 스웨덴에게도 예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경은 악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으며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이에 사회민주당 정부는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 개선운동'이 경제와 문화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사회개혁 정책에 포함시킨 결과 지금과 같은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이상적인 생활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에서 디자인은 구체적인 삶, 그 자체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디자인 분야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치유의 힘으로, 사회적 기능을 갖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 디자인정책은 자연적인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노력, 풍부한 자연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장인정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디자인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거나 사회개혁 정책으로 마련한 '디자인 운동'을 통해 그들은 지금 세계 수준의 복지국가로 군림하고 있으며, 그 원동력의 중심에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디자인'이 한 국가의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4. 결론

지금까지 디자인 즉, 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과, 과거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치유로서의 디자인'을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적 차원에서 찾아보았다. 모든 문화는 그들의 정신이 기반이 된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디자인 정신'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개념의 '디자인'은 인간 각각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고, 정화작용을 일으켰으며, 살아가는 희망을 주었음을 이미 역사 속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디자인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디자인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은 산업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디자인 정신'을 통한 의식개혁이 더 시급할 때라 여겨진다.

이에 '치유로서의 디자인(Design Therapy)'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생각 해 보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치유방법을 예로 삼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일상생활과 삶 자체를 개선하고, 사회와 국가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신'으로써, 'Design Therapy'를 연구하고 또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고영란,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향하여 : 양감조 할머니의 규방공예품을 위한 변론 (2004)
- 고영란, 셰이커 디자인에서 발견된 현대적 조형성에 관한 고찰 (1996)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현암사(1997)
- 강현주, 디자인사 연구, 조형교육(2004)
- 존. A 워커, 디자인의 역사, 까치(1995)
- 데이비드 스페로, 치유의 기술, 눈과 마음(2002)
- 윌리엄 모리스, 에코토피아 뉴스, 필맥(2004)
- 박진배,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27, 르포/ 세계의 문화도시를 찾아서, 미국의 전통 종교마을 - 셰이커 빌리지 (1997.12)
- 포스코 건설 전면광고, 조선일보, 2005. 9. 2 A11

1)고영란, 셰이커 디자인에서 발견된 현대적 조형성에 관한 고찰 (1996), p165